

보도시점 2023. 6. 5.(월) 14:00
(2023. 6. 6.(화) 조간)

배포 2023. 6. 5.(월) 09:00

과기정통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발표

- 6월 5일(월), 경제부총리 주재 서비스산업발전특별전담반(TF)에 상정·발표
- ①수출 체계(패러다임)에 대응한 수출 유망 품목 육성, ②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 ③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등 3대 전략 추진
- 전략발표 이후 첫 현지 수출 지원 행보로 6.5(월)~6.10(토)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 개척단을 파견하여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 개척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5일(월), 서비스산업발전TF에서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본 전략은 글로벌 경제 둔화 등 복합적 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수출 둔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전 부처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분야로서 역할을 해온 디지털을 중심으로 최근의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특히, 그동안 축적된 우리나라의 디지털 역량을 토대로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품목을 다변화하고 역동적인 신흥지역과 혁신 기업 육성을 통해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실천 과제를 담았다.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ICT 수출 상황·전망 및 대응방향

2022년 ICT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2,488억불)을 달성했으나, 세계 경기 둔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22년 7월부터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ICT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분야의 부진에 따라, 올해 3분기까지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챗 GPT와 같은 초거대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대규모 기술혁신, 全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새로운 시장의 성장과 역동성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재의 수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첫째, 초거대 AI 플랫폼, K-콘텐츠,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그동안 축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형 SW,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SW·ICT서비스와 AI 반도체, 5G 네트워크 등 ICT 장비·부품, 그리고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우수 성과 등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적극 육성하고,

둘째, 디지털 전환 및 대규모 인프라 투자(네옴시티 등)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청년인구 비율이 높아 디지털 시장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동,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 시장을 적극 개척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저변을 확대하며,

셋째, 새로운 수출동력인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여 수출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전략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비전,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과제1.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유망품목 육성

- ① 디지털 전환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SW, AI서비스, 온라인동영상 플랫폼(OTT),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SW·ICT 서비스 주요 품목에 대해 특화 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 SW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연계 지원하는 ‘SW프런티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유망 서비스형 SW(SaaS)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 협력을 통한 사업화 및 글로벌 마켓 플레이스 등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서비스는 기획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한 서비스 개발 및 해외 사업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내년에 신설하고, 국산 인공지능의 해외 확산을 위해 해외구매자 수요에 맞춰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돕는 글로벌 바우처도 지원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내년 해외 진출형 콘텐츠 제작지원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OTT플랫폼-콘텐츠-디바이스(스마트TV) 등 동반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글로벌 콘텐츠 마켓 참가, 글로벌 펀드 조성 및 국제 OTT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한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진출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들을 발굴하여 컨설팅·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 신도시·신공항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는 메타버스 기업의 현지화 개발비도 지원한다.

블록체인 분야도 NFT 등에서 국제표준화 참여, 해외 현지 사업화에 대해 기술 검증, 컨설팅, 마케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②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부품, 인공지능 반도체 등 ICT 장비·부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한다.

먼저,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해외에 5G 도입 확산을 지원하고, 오픈랜(Open-RAN) 등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 국제 인증시험소 구축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의 수출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에 수출지원 분과를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따라 향후 성장성이 높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수출 레퍼런스도 조기에 확보할 예정이다.

③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한 성과의 신속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제조·건설 등 분야별로 국내에서 디지털 전환 성과가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해외 시장조사, 현지화 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창출된 혁신서비스의 해외진출 등 Gov Tech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고,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을 통해 경험 공유 및 서비스·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추진할 계획이다.

과제2. 디지털 수출 영토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

① 해외 거점 신설, 수출 개척단 파견 등을 통해 중동과의 정상경제외교 성과를 디지털 수출 확대로 연계한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디지털 분야 고위급 면담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 기업간 투자 및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사우디, UAE에 파견(10월)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UAE 국부펀드 투자 등 우리 기업들이 중동의 다양한 디지털 비즈니스 수주 기회를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중동진출의 거점으로 UAE에 IT지원센터 신설('24)을 추진하고 현지 대기업이 무상 제공하는 사무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도 추가할 예정이다.

② 「한-아세안 협력기금」 및 디지털 수출개척단 파견 등을 활용하여 동남아 시장을 개척한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하여 디지털 서비스 분야(데이터·AI 등) 개발 및 융합·확산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 협업사업」을 통해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6월)하여 국내 디지털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 의료AI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동남아 국가와 현지병원 교차 검증, 인·허가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③ ODA, 개발은행 협력 사업 등을 활용하여 중남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코로나 등으로 중단된 「한-중남미 ICT 장관 회의」('17년 중단)을 복원하고, 과학기술-ICT 공동위원회 및 중남미 외교단 간담회 등을 활용하여 중남미 수출 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은 해외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정보제공·기술협력 등을 지원하고,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페루 등은 ODA를 활용하여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가별 시장 및 디지털 전환 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콜롬비아 등을 중심으로 현지 대기업이 제공하는 사무인프라 등을 활용한 민간 거점 신설('24년)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제3. 디지털 혁신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① 디지털 혁신기업 해외진출 및 수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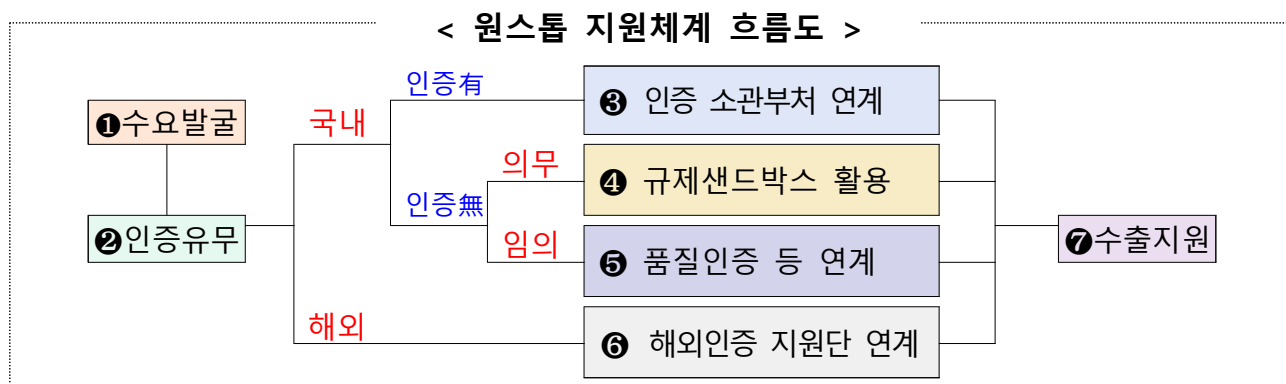
우선, 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독립 전문기관을 출범(6월) 하여, 컨설팅·매칭, 조인트벤처 설립 등 종합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에 실리콘밸리 등 글로벌 액셀레이터의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내 글로벌 액셀레이터 간 협력프로그램을 통한 국내 창업 생태계의 창업·보육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장·차관 현장 간담회」, 「ICT 수출동향협의회」 등을 통해 디지털 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② 디지털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요한 인증, 스케일업 R&D, 대출, 무역보험 등 수출 기반을 강화한다.

먼저, 혁신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신속히 출시되어 글로벌 레퍼런스를 선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 확보를 돕는 범부처 원스톱 지원 체계를 지난 3월 구축하였다.



또한, 기존 우수 연구개발 성과의 수출 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수요에 기반한 기술 검증·전환·고도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연구개발과제를 신설하는 한편,

디지털 신산업 분야 정책금융(약 7,000억원)을 활용하여 유망 수출기업에 대출 우대상품을 제공하고, 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하여 미래 유니콘 선정기업, SW고성장클럽 등 우수 디지털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③ 온·오프라인을 활용하여 디지털 혁신기업에게 시·공간 제약없는 홍보·전시를 지원한다.

제페토, 이프랜드 등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에 상설 전시관을 구축(9월)하여 디지털 혁신기업 제품에 대한 글로벌 전시·홍보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오프라인 전시회(월드IT쇼 등)를 통한 해외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전시회 상담이 성과 창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최근 디지털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협력 동향 및 신흥시장 개척 계획

일본 총무성과의 디지털 협력 채널 복원

한편, 과기정통부는 일본 총무성과 지난 5월 30일 도쿄에서 디지털 분야 차관 회담을 통해 장관협의체인 한-일 디지털 정책포럼을 신설하고 연내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디지털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와 기초과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일본이 각국의 장점을 살려 인공지능, 오픈랜(Open-RAN), 양자통신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가칭)한-일 비즈니스 포럼」을 신설하고, 양국이 개최하고 있는 ICT 전시회에 상대국 기업을 초청하고 전시관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협력 방안도 제시하였다.

아세안 지역 디지털 수출 개척단 파견을 통해 신흥시장 개척 본격화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분야 수출 전략 발표 이후 첫 번째 현지 수출 지원 행보로 6월 6일부터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 파견하여 디지털 분야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도 본격화한다.

이번 「2023 민·관 합동 아세안 디지털 수출개척단」은 박윤규 제2차관을 단장으로, 국내 디지털 분야 100여개 기업과 전문기관들이 참여하여, 동남아 각 국가별 맞춤형 수출 지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방문(6월 6일)하여 정보보호, 헬스케어, 콘텐츠, 스마트 시티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기업 18개사가 참여하는 「ICT 비즈니스&콘텐츠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바이어와 상담회를 통한 수출 협의 및 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며, 인도네시아 중소기업협동부 장관과 면담 및 국내 제품·서비스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음 싱가포르(6월 7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중 하나인 「커뮤닉 아시아 2023」(6월 7일~9일)에 40여개 디지털 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관을 운영하는 등 해외 판로개척을 돕고,

차관급 회담을 비롯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싱가포르) 간 양자정보기술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의료AI 인허가 라운드 테이블 등을 통해 양국간 디지털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 방문국인 베트남(6월 8일~9일)에서는 「K-Global@베트남 2023」 행사를 개최하여, ICT 수출·투자 상담회와 스타트업 피칭 등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들이 현지 바이어·기업들과 비즈니스 네트워킹 기회를 갖도록 지원하고,

「한-베트남 의료AI+ 디지털전환 협력포럼」 개최를 통해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양국 간 협력방안 논의와 우리 디지털 기업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별첨. 디지털 분야 해외진출 및 수출 활성화 전략

담당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도성 (044-202-6220)
		담당자	서기관	강동완 (044-202-6221)
협조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기반과	책임자	과 장	이주식 (044-202-6240)
		담당자	사무관	주재현 (044-202-6244)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민표 (044-202-6120)
		담당자	사무관	이윤선 (044-202-6122)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보경 (044-202-6290)
		담당자	사무관	유경태 (044-202-6291)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철기 (044-202-6320)
		담당자	사무관	정준욱 (044-202-6321)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	책임자	과 장	구본준 (044-202-6520)
		담당자	사무관	곽미경 (044-202-6521)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보열 (044-202-4330)
		담당자	사무관	남경일 (044-202-4331)